

보도 일시	2022. 8. 31.(수) 09:00	배포 일시	2022. 8. 31.(수) 09:00
담당 부서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	책임자	과장 김경화 (044-203-3161)
		담당자	사무관 이종호 (044-203-3167)

##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유치 본격 추진

- 8. 31. 대한축구협회, 아시아축구연맹에 유치신청서 공식 제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가 8월 31일(수), 아시아축구연맹(AFC)에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이하 아시안컵)’ 유치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함에 따라 대한축구협회, 지자체 등과 함께 본격적으로 대회를 유치하는 데 힘쓴다.

중국이 올해 5월 코로나19를 사유로 아시안컵 개최권을 반납함에 따라 아시아축구연맹은 새로운 개최지 선정 절차를 공지했다. 이에 대한축구협회는 공지 직후 아시안컵 유치를 공식 표명하면서, 6월 30일(목)에 아시아축구연맹 측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8월 31일(수), 유치계획서(비딩북), 정부보증서, 경기장·훈련장 협약서 등을 포함한 공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본격 유치 절차에 돌입한다.

### 대한민국의 축구 발전과 함께하고 우승 염원이 담긴 의미 있는 대회

아시안컵은 아시아지역 최고 권위의 축구대회이다. 대한민국은 초대 대회(1956년)의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 축구사 최초로 국제대회 우승을 기록했다. 아울러 제2회 대회(1960년)를 국내에서 개최했고, 대회를 치르기 위해 신설한 서울효창운동장은 대한민국 유소년과 아마추어 축구 육성의 산실이 되기도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2회 대회까지 2연패 우승을 한 후 60여 년간 준우승만 4차례 달성(1972년, 1980년, 1988년, 2015년)하는 등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해 축구를 좋아하는 많은 국민의 우승 염원이 담겨 있는 대회이기도 하다. 최근 대회 중 가장 좋은 성적을 달성했던 2015년에는 손흥민 선수가

후반 종료 직전 동점골을 기록하는 등 오랜 기간 기다려온 우승에 다가가는 듯했으나 개최국 호주에 연장 결승골을 허용, 아쉽게도 준우승에 그쳤다. 당시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선수들이 눈물을 흘리던 모습은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

**대한민국, 카타르, 호주, 인도네시아 4개국 경쟁,  
대한민국 3대 국제 스포츠 행사 개최 성공, 한국문화(케이컬처)와 결합 흥행 등  
충분한 강점 지녀**

한편, 2023 아시안컵 유치를 경쟁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2022 피파(FIFA) 월드컵 개최지인 카타르, 2023 피파(FIFA) 여자월드컵 개최지인 호주, 2023 피파 20세 이하(FIFA U-20) 월드컵 개최지인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이다.

2022 피파 월드컵의 최신 경기장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카타르가 유리한 장점을 가진 상황이지만, 대한민국 또한 2002년 피파 월드컵, 1988 서울하계올림픽, 2018 평창동계올림픽 3대 국제 스포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스포츠 기반시설, 첨단 정보기술(IT),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문화적 역량을 전 세계에 선보인 바 있다. 아울러 2024년 1월로 대회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카타르, 호주와 달리 기존 일정('23년 6월~7월) 대로 대회를 치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기존 개최 예정지가 같은 동아시아 지역인 중국으로 이전 대회 2019년 개최지가 중동지역(아랍에미리트)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역 안배 측면에서도 개최 명분에 앞선다. 또한, 한국문화(케이컬처)가 전 세계적 갈채를 받는 가운데 아시아 축구가 한국문화(케이컬처)와 결합해 스포츠 문화축제가 되고 아시안컵 대회를 한 단계 높여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 열기와 함께 한국문화(케이컬처)에 관심이 많은 중국, 일본 등 많은 아시아인들의 환호와 관람 수요가 대회 흥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충분한 강점으로 평가된다.

**문체부, 대한축구협회·지자체 등과 함께 대회 유치 총력**

9월에 아시아축구연맹 현장 실사가 진행되며, 이후 아시아축구연맹 집행 위원회를 거쳐 10월 17일에 개최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대한축구협회, 개최 예정 지자체 등과 함께 아시아축구연맹 실사에 대응하는 등 대외 유치 활동을 본격화하고, 국내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9월 2일(금)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알림대사 발대식’을 개최하는 등 63년 만의 대회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붙임 아시안컵 개요



□ **아시안컵 개요**

- (주최) 아시아축구연맹(Asian Football Confederation (AFC))
  - 월드컵 다음의 최대 축구경기대회로, 아시아지역 최고권위 대회
- (창설시기 / 개최 주기) 1956년 / 4년 주기 개최
- (대회규모) 본선 진출 24개국
  - \* 4팀 6개조 편성 후 조별리그 진행, 각조 1·2위 및 각 조 3위 중 상위팀 4팀이 16강 진출 후 결승전까지 토너먼트 방식 진행
- (역대성적) 우승 2회(1956, 1960)      \* 준우승 4회 / 3위 4회

□ **아시안컵 역대 개최국**

회차	연도	개최국	대한민국 성적
1회	1956	홍콩	우승
<b>2회</b>	<b>1960</b>	<b>대한민국</b>	우승
3회	1964	이스라엘	3위
4회	1968	이란	본선진출 실패
5회	1972	태국	준우승
6회	1976	이란	본선진출 실패
7회	1980	쿠웨이트	준우승
8회	1984	싱가포르	9위
9회	1988	카타르	준우승
10회	1992	일본	본선진출 실패
11회	1996	아랍에미리트	7위
12회	2000	레바논	3위
13회	2004	중국	6위
14회	2007	4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3위
15회	2011	카타르	3위
16회	2015	호주	준우승
17회	2019	아랍에미리트	5위